‘혜암 선사’의 철저한 수행 돌아보다

혜암문도회,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 앞서 회고록 봉정

합천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쉼 없는 정진과 서릿발 같은 가르침으로 불제자들을 이끈 혜암 스님의 삶을 생생한 증언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혜암대종사문도회(회장 성법)는 5월 7일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2020년)에 앞서 회고록 〈스승 혜암〉을 출간하고 봉정식을 합천 해인사 원당암에서 개최했다. 봉정식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과 여연 스님, 대오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혜암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회고했다.

봉정식에서는 탄신일을 축하하며 육법공양에 이어 책 〈스승 혜암〉이 봉정됐으며, 대중은 혜암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담긴 법문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방장 원각 스님과 문도회장 성법 스님, 책 대담을 진행한 유철주 작가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은 종단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을 돌보지 않고 호법신장 역할을 담당한 큰 어른이셨다”며 “또한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씀으로 불제자에게 공부를 당부하고 앞서 몸소 실천하며 평생 장좌불와와 일종식으로 용맹 정진해 모범을 보여주신 선지식”이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복잡한 종단 현실과 해인사를 돌아보고 지금 더욱 정진을 당부한 스님 말씀을 지켜 화합하고 난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회장 성법 스님은 “불굴의 의지 가지고 물러섬 없이 정진을 당부하신 혜암 스님이셨다”며 “공부는 철저하며 자신에겐 엄격하셨지만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대자비의 모습으로 불자들을 대하셨다”고 말했다.

유철주 작가는 “혜암 스님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누구보다 간절한 수행자였고 세상 앞에선 누구보다 당당한 선지식이었다”며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대불교사에서 혜암 스님처럼 간절함과 당당함을 가진 수행자를 찾기가 어렵다. 기회가 된다면 큰 스님의 법어를 정리하며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혜암대종사문도회는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사회에 알려 공덕을 기리고자 사단법인 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가올 2020년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혜암대종사문집 정본화 사업, 평전간행 등 출판사업을 비롯해 수행처 순례사업, 학술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이다. 책 〈스승 혜암〉은 사업의 일환으로 혜암 스님을 가까이 보좌하고 직접 목격한 출가 및 재가자 25명을 선별해 대담을 진행, 정리한 책이다.

대담형식 〈스승 혜암〉 출간

출·재가 25인의 회고 담아

탄신 100주년 선양사업 박차

수행처 순례·학술대회 계획



혜암대종사문도회가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2020년)에 앞서 5월 7일 회고록 〈스승 혜암〉을 출간하고 봉정식을 해인사 원당암에서 개최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책을 봉정하고 있는 모습.

유철주 작가는 “선방에서, 부엌 혹은 마당에서, 또는 깊숙한 숲속 암자부터 대중이 모인 강당까지, 혜암 스님 발자취를 따라 조각조각 기억을 모았다”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혜암 스님의 큰 가르침의 본래면목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혜암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에서 탄생, 1946년 27세에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 출가했으며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우봉, 자운, 보문, 도우, 법전,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동화사 금당선원, 통도사 극락암 선원, 묘관음사 선원, 천축사 무문관, 지리산 칠불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93년 해인총림 제6대 방장에 추대됐으며 1일1식과 장좌불와 수행으로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철저한 두타행으로 정진했다. 19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因果)가 역연(歷然)하니 참선 잘하라”며 당부하고 원적에 들었다.

“화쟁·일심무애로 불국정토 이루자”

원효종, 원효보살 추모 제1332주기 열반대재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5월 4일 원효보살 추모 제1332주기 열반대재를 경주 원효종 총무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재에는 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스님과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운오 스님, 선관위원장 석불 스님 및 지역 각 교구원장, 종도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인간의 근본은 하나인 한마음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일심으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원효보살의 화쟁사상과 무애정신을 되새겨 더불어 잘 살아가는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자”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원효보살의 화쟁사상은 일심무애의 가르침이니 미혹에 허덕이는 지금의 시대에 무명을 밝혀주시어 모든 이의 마음을 부처님과 원효보살의 법력으로 자비광명이 충만토록 하고, 미혹과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고 불국정토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효종은 추모대재에 이어 제14대 종정 설제 정광 대종사 재 추대식도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재난 전화위복, 불사로 회향”

울산 정토사, 감실 8대 불상 봉불 개원법회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며 도량 훼손의 아픔을 겪은 울산 정토사.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난이 다녀간 자리에 8대 불상을 조성해 회향하며 아픔을 극복해 눈길을 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5월 9일 ‘정토사 감실 8불상’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감실 8대 불상은 2016년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축대를 다시 쌓으며 생긴 옹벽에 조성됐다. 정토사는 축대 복원작업 중 옹벽에 석굴모양의 감실을 만들었다. 석굴은 길이 35m, 높이 24m 규모로 산사태 복구용 옹벽에 자리 잡았다.

석굴에 봉안된 8대 불상은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과거불인 연등불, 미래불인 미륵불로 과거·현재·미래 삼세불과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불로 구성됐다. 오방불은 중앙 비로자나불, 동방 약사여래불, 남방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여래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재난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옹벽을 튼튼히 시공했고,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모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과 번영을 염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족들 함께 즐기는 부처님오신날

전북 봉축위, 전주 덕진공원서 어린이 큰잔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북지역 어린이들의 문화마당인 어린이 큰잔치가 열렸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5월 7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전주지역의 어린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고, 자연친화적인 사고력을 개발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숨겨진 장기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큰잔치는 전북불교회관과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주관으로 진행됐다.

4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뉘어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 △부처님 그리기 △사경 △연꽃등 만들기 △108염주 꿰기 등의 불교문화 체험활동과 △투호 △줄넘기 △단체줄넘기 △그네타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잊혀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떡볶이 스님’으로 유명한 진안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은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치즈 떡볶이를 제공했으며, 송광사 청년회는 각종 부침개를 간식으로 제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장병도 평화 염원’ 35사단 연등제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의 부처님오신날 연등법회가 열렸다.

35사단 호국 충경사(김태현 법사)는 5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충경부대원의 안전과 남북 평화협정을 기원하는 연등제를 개최했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해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대원사 석문 스님, 보문사 혜원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김경수 35사단장, 불자장병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소이풀’의 난타공연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송, 무사고 기원 기도, 설법,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수 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 신앙으로 국난 극복의 기둥으로 어려움을 헤쳐왔다”며 “연등제를 통해 모두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부대원들의 안녕과 평화를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북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군인이다 평화협정으로 함께 잘 살고 전쟁 없이 희망의 삶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9) 해, 달, 별 ~ 수명이 깎인다. : 해, 달, 별은 天地萬物을 養育하는 根源이어서 太古以來 神聖視하였다. 서쪽은 佛敎의 西方極樂淨土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쪽은 陰寒의 근원지로 妖鬼, 邪鬼, 陰鬼가 사는 곳이라고 易學에서는 說한다.

10) 옷을 하체는 ~ 입어야 한다. : 인체의 理想的인 건강상태는 水昇火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火降하면 水昇하므로 그 중 한 방법으로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하체를 상체보다 따뜻하게 해야 한다.

11) 곽란(霍亂) : 發熱, 嘔吐, 頭痛, 身疼痛하며 泄瀉하는 증상. 음식을 잘못 먹어서 腸胃의 淸氣와 濁氣가 相亂하여 발생한다.

12) 많은 땀을 ~ 역시 좋다. : 옷에 젖은 땀이 마르는 과정에서 체온을 빼앗으니 땀 흘린 후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小兒의 盜汗症은 만성감기, 百日咳의 원인이다.

13) 많은 땀이 ~ 마비된다. : 땀이 나면 피부의 氣門이 열리는데 이때 차가운 自然風, 선풍기바람, 에어컨바람을 쐬면 冷氣가 腠理에 著着하여 감기, 중풍을 일으킨다. 목욕, 洗髮, 싸우나 후에도 이에 해당되니 머리를 말리려고 드라이를 머리에 쐬어도 해롭다. 해롭다.

14) 각기(脚氣) : 다리에 風·寒·濕의 三氣가 침투하여 생기는 병. 痲痺, 冷痛, 萎弱, 攣急, 腫或不腫의 증상이 있다. 飮酒, 房勞에 의한 예도 있다.

21 피해야할 기상(氣象). 天時避忌。

○內經曰, 陽出則出, 陽入則入。無擾筋骨。無見雰露。違此三時, 形乃困薄。

《내경(內經)》①)에 이르기를, 해 뜨면 밖으로 일하러 나가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 자라. 근육과 뼈를 지나치게 사용치 말라. 안개와 이슬을 대하지 말라. 이 셋을 어기면 몸이 곤고하고 허약해지리라.

○經云, 大寒, 大熱, 大風, 大霧, 勿冒之。天之邪氣, 感則害人五臟。水?寒熱, 感則害人六腑。地之濕氣, 感則害人皮肉筋脈。先賢曰, 人以一握元氣, 豈可與大造化敵。康節有四不出之訓。

큰 추위, 큰 더위, 큰 바람, 큰 안개를 무릅쓰고 행동하지 말라. 하늘의 사기(邪氣)에 사람이 감응하면 5장(五臟)이 해롭고, 강과 골짜기의 한열(寒熱)에 감응하면 6부(六腑)에 해롭다. 땅의 습기에 감응하면 피부, 근육, 경맥(經脈)에 해롭다.

선현(先賢)이 말하기를, “사람은 한 움큼의 원기(元氣)를 지님이 마땅한데 어찌 대조화(大造化)와 적대적으로 행동하려 하는가?” 소강절(邵康節)②)은 기상(氣象)이 나쁜 네 종류의 날에는 집밖에 나가지 말도록 가르쳤다.

○書云, 犯大寒而寒至骨髓, 主腦逆, 頭痛, 齒亦痛。又云, 不遠熱而熱至則頭痛, 身熱, 肉痛生矣。

큰 추위를 범하여 한기(寒氣)가 골수(骨髓)에 침입하면 기(氣)가 뇌로 치솟아 두통이 생기며 치통까지 따라 생긴다. 또한 이르기를, 열을 멀리하면 안 좋다하여 열을 가까이 하면 두통과 근육통이 생기고 몸에서 열이 나게 된다.

○眞人曰, 在家在外, 忽逢大風, 暴雨, 震雷, 昏霧, 皆是諸龍鬼神經過。宜入室燒香靜坐以避之, 過後方出吉, 不爾殺人。

진인(眞人)이 말하기를, “집안에 있거나 집밖에 있거나 큰 바람, 폭우, 우레, 짙은 안개가 있는 때는 여러 귀신, 용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시점이다. 의당히 방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정좌한 채 피하였다가 사라진 후 밖으로 나오면 길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수도 있다.③)”

○書忌云, 朔不可哭, 晦不可歌, 招凶。

초하룻날에는 울면 안 되고 그믐에는 노래를 부르지 말라. 흉한 일을 부르게 된다.

22 사계절의 몸가짐. 四時調攝。

○內經曰, 春三月, 此謂發陳。夜臥早起, 生而勿殺。逆之則傷肝, 夏爲寒變, 奉長者少。又曰, 春傷於風, 夏必飧泄。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봄의 석달은 발진(發陳)④)이라고 이른다.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남이 좋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 어기면 간(肝)을 상하여 여름에 추위를 타게 되는데도 지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자는 적다. 또한 이르기를, 봄에 바람에 상하면 여름이 되면 반드시 손설(飧泄)이 생긴다.

○書云, 春夏之交, 陰雨卑濕, 或引飮過多, 令患風濕, 自汗, 體重, 轉側難, 小便不利。作他治, 必不救, 惟五苓散最佳。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비가 지루하게 내려 기후가 습한데 이러한 때 음주가 지나치면 풍습(風濕)에 이환(罹患)되어 낮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몸이 무거워 몸을 돌리기가 어려우며 소변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소변불리(小便不利)에 대해서 다른 치료법은 반드시 효과가 없고 오직 오령산(五苓散)⑤)만이 제일 신묘(神妙)하다.

○內經曰, 夏三月, 此謂蕃秀。夜臥早起, 使志無怒, 使氣得泄。逆之則傷心, 秋爲痎瘧, 奉收者少。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여름의 석 달은 번수(蕃秀)⑥)라고 이른다.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남이 좋고 뜻을 씀에 노(怒)함이 없어야 하지 노하면 기(氣)가 빠져나가 버린다. 어기면 심(心)을 상하여 가을에 해학(痎瘧)⑦)이 생기는데도 지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적다.

○陶隱居云, 四時惟夏難將息, 伏陰在內腹冷滑, 補腎湯劑不可無, 食物稍冷休哺嚥。書云, 夏之一季, 是人蛻神之時, 心肝腎衰, 化爲水, 至秋而凝, 冬始堅。當不問老少, 皆食暖物, 則不患霍亂。腹暖百病不作。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사계절 중에서 오직 여름철만이 지내기 어렵다. 음기(陰氣)가 몸속에 잠복하면 배가 차서 설사한다. 음식물 또한 차가워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보신(補腎)하는 탕제(湯劑)를 먹지 않으면 안 되며 음식이 조금만 차가워도 급히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된다.” 여름한철은 심신(心身)이 탈진(脫盡)하는 때이어서 심(心), 간(肝), 신(腎)이 허약해져 조직이 변화하여 물이 되어 가을이 되면 응결되다가 겨울이 되면 비로소 견고해진다. 늙고 젊음을 따질 것 없이 모든 이가 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곽란(霍亂)을 예방해야 한다. 배가 따뜻하면 온갖 병이 생기지 못한다.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198-5351